모바일게임 2차전쟁… "이젠 해외시장이다"

게임업체들, 글로벌 경쟁 본격화

넥슨 '마비노기 듀얼' 하반기 6개 언어 서비스
액토즈게임즈, 30개 게임 나라별 현지화 작업
게임빌·컴투스 등도 亞·유럽에 현지법인 박차



주요 게임사들이 성장한계에 다다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모바일게임 시장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글로벌 인기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액토즈게임즈의 '던전스트라이커 코드M'(왼쪽 사진)과 넥슨의 글로벌 원빌드 전략 첫 결과물인 '마비노기 듀얼'.

"모바일게임,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주요 게임사들이 잇달아 신규 모바일게임 라인업을 대거 공개하며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성장한계에 다다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전선을 확대하며 그 성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넥슨, 글로벌 원빌드 전략

넥슨은 27일 서울 서초동 넥슨아레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데브캣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정통 모바일카드게임(TCG) '마비노기 듀얼'을 6월 9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게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넥슨의 '글로벌 원빌드' 전략의 첫 번째 결과물이기 때문. 넥슨은 마비노기 듀얼을 6월 한국에 먼저 출시한 뒤, 하반기 중 총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번체), 포르투갈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글로벌 마켓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에선 28일부터 데브캣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devcat.nexon.com)를 통해 사전 예약 이벤트도 진행한다. 넥슨은 자회사 넥슨지티가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슈퍼판타지워'에도 글로벌 원빌드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액토즈, 글로벌IP 활용 게임 공개

액토즈게임즈는 같은 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출시 예정인 10여종의 신규 모바일게임 라인업과 함께 사업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신작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동해 액토즈게임즈 대표는 "2015년은 액토즈게임즈가 글로벌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액토즈게임즈는 특히 글로벌 게임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드래곤네스트'와 '던전스트라이커', '라테일' 등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린 PC온라인게임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내놓는 모바일게임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로 서비스하고, 동남아와 미주, 유럽 같은 경우 권역별 특화된 현지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30여개의 게임을 준비해 각 나라별 현지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넷마블·컴투스 등도 해외사업 강화

모바일게임 강자들도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통계 분석 사이트 앱애니 발표에서 전 세계 매출 5위를 기록한 넷마블게임즈는 최근 글로벌 원빌드로 출시한 '마블 퓨처파이트'가 출시 2주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등 해외 공략 청신호를 켰다. 아울러 최근 공개한 '이데아'도 글로벌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백영훈 넷마블게임즈 사업총괄 부사장은 "앞으로 북미와 유럽 등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크리티카'와 '서머너즈워' 등을 통해 이미 그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게임빌과 컴투스도 동남아를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주요 거점에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 및 지사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게임빌의 경우 상반기 내 유럽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통합체육단체 새 이름 '한국체육회' 제시

국민생활체육회 '통추위' 3차 회의
손석정교수 새 조직운영 주제 발표


27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임번장 위원장(오른쪽)이 회의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생활체육회

"새로운 통합체육단체 명칭을 한국체육회로 하자."

국민생활체육회-대한체육회 통합을 위한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 3차 회의가 27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임번장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추진위원 15명이 참석했다.

통합추진연구단 소속의 손석정 남서울대 교수가 '국민생활체육회-대한체육회 중앙조직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검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손 교수는 양 단체 통합논의의 역사를 설명하고 체육단체 통합의 당위성, 통합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언급했다. 손 교수는 통합체육회에 걸맞은 새로운 명칭으로 '한국체육회', '국민체육회' 등을 제시했다. 조직운영 방법으로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완전히 병렬로 연결하여 '2 사무총장제'를 운영하는 방안 ▲홍보실, 감사실 등 일부 중복부서를 통합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별도로 운영되는 '일부통합' 방안을 내놨다.

이어 손 교수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일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정관과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필요한 '회장선출 방법', '임원 구성 방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김영관 위원(통합추진지원단장)은 지원단에서 논의된 '통합시 지역체육단체장을 지자체장이 맡을 것인가, 민간단체장이 맡을 것인가', '통합 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종목단체가 통합할 경우 국가예산 지원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시민단체 "LG유플러스 불법 다단계 판매 의심"

서울YMCA, 공정위에 조사 요청

시민단체가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판매원을 끌어 모은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에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업체 두 곳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요청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두 업체가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했고,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영업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특히 해당 업체 두 곳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실질적으로 LG유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YMCA의 한 관계자는 "고발한 업체 이외의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기만적인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정구호 디자이너, 휠라코리아 CD·부사장에


휠라코리아㈜(대표 윤윤수)가 CD(크리에이티브 디렉터)·부사장으로 디자이너 정구호(53·사진)씨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휠라코리아가 국내 사업부문에 CD체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구호 신임 CD·부사장은 휠라코리아 전 브랜드의 제품 디자인, VMD부터 브랜드별 정체성 및 방향성 재확립 등 전반적인 브랜드 운영에 관여하고 재정비 프로젝트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정 신임 CD·부사장은 쌈지 CD겸 대표, F&F를 거쳐 제일모직 CD 겸 전무로 2013년까지 근무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업계 최초로 공명음 감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K-silent system' 기술을 적용한 금호타이어의 저소음 타이어. 운전자는 평소보다 8% 가량 소음이 감소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사진제공 |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소음 줄인 '공명음 저감 타이어' 6월 출시

내부에 폴리우레탄폼 재질 흡음재 부착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공명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소음 타이어를 6월 시장에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저소음 타이어는 타이어의 바닥면과 도로 노면이 접촉하면서 타이어 내부 공기 진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공명음)을 감소시킨 '공명음 저감 타이어'(K-Silent Tire)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내부에 폴리우레탄폼 재질의 흡음재를 부착해 타이어의 공명 소음을 감소시켰다. 타이어에 부착하는 흡음재의 디자인, 면적, 폭 넓이 등을 감안한 형상 설계가 핵심 기술이다. 금호타이어는 공명음 감소 효과 극대화를 위해 흡음재 형상 및 재질을 최적화한 'K-silent system' 기술을 적용했다. 업계 최초다. 흡음재의 형상과 재질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고, 해외에서도 독자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일반타이어와 K-Silent System 기술을 적용한 저소음 타이어를 자체 비교 테스트한 결과 자사의 기존 제품 대비 4.5dB의 공명 소음이 감소해 운전자가 느끼는 소음이 약 8%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성능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 제품을 기반으로 개발돼 소음은 줄이면서도 일반성능(핸들링, 주행감) 및 라벨링 성능(회전저항 및 젖은 노면 제동력) 등 품질과 내구력은 그대로 유지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2개 규격(275/40 R19, 245/45 R19)이 생산되며, 대상 차종은 에쿠스, K9, BMW7, 재규어XJ 등이다. 가격은 일반 제품 대비 15% 가량 높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당당한 미소, 건강한 치아, 행복한 치과이야기

치아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 종류도 달라

나이가 들면 잇몸과 치아가 약해져 맛보는 즐거움이 줄어든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틀니로 치아 건강을 유지하려 한다. 최근에는 틀니보다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건강을 유지하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곳에 인공치아를 심는 것이다. 앞니가 없어 외관상 보기 좋지 않거나 어금니가 없어 원하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기 힘들었던 경우에 적합한 시술이다.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금속나사 모양의 픽스쳐와 치아모양의 보철물 그리고 지대주와 보철물을 연결해주는 연결부분 등 세 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주 재료는 타이타늄 금속으로 인체에 무해하다.

●치아 상태와 증상에 따라 임플란트 종류 다르게

임플란트 시술은 환자의 치아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시술종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치아건강에 도움이 된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는 필치과의원에서는 발치 후 즉시임플란트, 비절개임플란트, 앞니임플란트, 전악임플란트 시술, 틀니용임플란트 시술 등 다양한 종류의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치아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우선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는 치과에 내원한 후에 구강 검진을 하고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CT촬영을 한다. 또 전체적인 진단을 내리고 환자 개개인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운다. 그 후에는 임플란트가 들어갈 부분의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잇몸을 덮어주어 잇몸뼈 간의 결합을 유도한다.

임플란트와 잇몸뼈 간의 결합이 완성되면 기둥을 턱뼈에 심는 과정으로 잇몸을 열고 정확한 위치에 심은 후 다시 잇몸을 덮는다. 시술 방법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임시보철물 장착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는 뼈에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보철물을 제작해 치료를 마무리한다.

●금연, 치실, 보호장치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꾸준한 관리를

이처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한다. 우선 담배에 있는 일산화탄소 성분이 잇몸과 잇몸뼈의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금연을 해야 한다. 보통 치료 전 일주일 전부터 치료 후 2-3주까지 금연을 해야 한다.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주변의 자연치와 같이 꼼꼼하게 양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 치솔질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폰스법 또는 바스법 등을 이용하면 임플란트와 잇몸의 경계부위의 프라그 제거에 효과적이다. 또한 간혹 잠을 잘 때 이를 갈거나 이에 힘을 주는 버릇이 있다면 보호장치를 착용하고 수면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좋은 습관이다.

필치과의원 이경철 대표원장